| 현불 논단 |

서산대사 같은 총무원장 찾자



김형중
동국대
부속 여자고등학교교장

전임 원장 스님의 친자 의혹으로
조계종단, 한바탕 광풍에 '몸살'
새 지도자 선출하는 선거 시작돼

네 후보 스님 모두 수행 · 포교 모범
모범적 공명선거 위해 손 맞잡기도

차기 원장 첫 덕목은 '도덕성' 이지만
도덕적 결벽주의에만 매몰돼선 안돼
과거 갈등 화합시키는 포용력도 필요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기다림' 이라는 시에서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 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주어야 한다… 누가 와야 한다"고 읊었다.

현재 우리 조계종단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서산대사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지도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여망하는 시인 것 같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는 의승병을 일으켜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그때 스님의 나이는 73세였다. 불교종단이 선종과 교종의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되었을 때 선교 양종을 통합한 판사요, 도총섭이다.

현재 조계종단은 前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친자 의혹' 이라는 문제로 인해 종단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불신임과 탄핵을 받은 상황이다. 광풍이 한바탕 지나가면서 종단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와중에도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후보에는 기호 1번 혜총 스님(前 포교원장), 기호 2번 원행 스님(前 중앙종회의장), 기호 3번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 기호 4번 일면 스님(현 원로의원) 등 네 스님의 자웅을 겨루는 각축전이 시작되었다.

세간의 중평이 후보 네 분의 그 동안 수행자로서 살아온 면면이 이 정도면 누가 되어도 참 잘 할 수 있겠다고 한다. 수행이나 포교에 자타가 공인하는 달인 스님이요 모범승이라고 찬사를 한다. 종단의 주요 직책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후보이다.

다행히 아직 태풍의 전야처럼 고요하게 선거전이 진행 중이다. 후보들 간에도 모범적인 공명선거를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

이번에 뽑힐 총무원장의 덕목은 첫째가 도덕성 그리고 행정추진 능력과 포용력이다. 법정 스님 같은 청렴하고 결백한 지계정신으로 무장한 인물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돼야 한다. 최근 일련의 종단 갈등은 범계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들이 상당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계정신이 출중한 종무행정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단점이나 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성자 간디도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도 했다. 문제는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주홍글씨로 먹칠해서 생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

불교는 지나간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 중생이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종교이다.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은 병이다.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일이 불교의 성자를 뽑는 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 결백주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 네 스님의 공통점이 모두 전법 포교와 불교교육에 일가를 이루었다. 특히 군포교에 앞장서고, 도심포교를 개척하고, 승가교육에 선봉장인 지장이요 덕장이요 용장이다. 유치원 청소년 포교와 교육, 복지사업 그리고 생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 일선에서 사회를 선도한 선각자요 원력보살이다.

번뇌가 크면 깨달음도 크다. 이번 우리 종단의 아픈 상처와 갈등을 잘 치유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총무원장은 차제에 종단의 갈등과 불만 세력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불문에 붙이고 다 털고 가야 한다. 큰 용광로 속에서 일불제자로 화합시켜 새로 태어나는 불자를 만드는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

다음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는 유능한 종무행정을 펼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부처이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특별기고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고

4년 만에 열리는 학인 염불대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볼 것
많은 대중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

9월 19일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2018 조계종 학인 염불시연대회' 가 개최된다. 지난 2014년 '제1회 조계종학인 염불시연대회' 가 열려 크나큰 반향을 일으킨지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뜻 깊은 행사인지라 감회가 새롭다.

중국 사찰에 가면 선원 벽에 두 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개 숙여 발밑을 보라는 '조고각하(照顧脚下)' 와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고' 하는 '염불자수(念佛者誰)' 라는 것이다. 때론 염불시수(念佛是誰) 혹은 염불자시수(念佛者是誰)라고 하기도 한다.

염불(念佛)은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염불삼매(念佛三昧)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염불은 마땅히 수행자가 해야 할 수행이자 중생들의 교화방편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염불하는 이를 '염불중' 이라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풍토가 있어 왔다. 한국불교가 선불교의 종지종통을 견지하기에 생긴 일인데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는 회통(會通)의 통불교(通佛敎)적인 전통을 간직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맹자의 말처럼 항산(恒產)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다는 말처럼 염불하는 이가 없다면 어찌 참선수행만을 할 수 있겠는가?

덕숭총림 수덕사는 선지종찰(禪之宗刹)이지만 아름다운 염불의 전통 또한 간직하고 있다. 만공 스님은 대종장(大宗匠)이자 대어산(大魚山)이셨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수덕사만의 아름다운 염불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정월 초하루날, 금선대 진영각의 옛 스님들께 신년다례를 올린 후 큰절 대웅전까지 온 대중이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내려와 신년 통알(通謁)을 올릴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하기만 하다. 또한 수덕사 3대 보물 중의 하나로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그래서 자기 법명조차 쓸 수 없는 천진한 보리(菩提) 스님이 귀동냥으로 익힌 새벽 도량석은 우렁차고 힘이 있어 감동하게 된다.

예전에는 이렇듯이 각 본사마다 전통 염불이 잘 보존 되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상한 염불로 통일되어 그 멋과 맛이 사라져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연유로 전통의 염불을 복원하고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창작염불의 계발을 위해 염불시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할 것이다.

올해 유별난 삼복더위 염천(炎天)에 학인들의 염불열기로 온 도량이 염불로 장엄 중이다. 학인 스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찬탄과 환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작품을 시연할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단언컨대,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그 무엇을 상상하든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9월 19일 조계사에 오셔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함께 즐기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社說

종책 승부하는 선거 기대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기호1번부터 기호4번까지 네 스님 모두 같은 날 정견발표를 통해 각자의 종책을 소개하는 한편,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하는 등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상대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없는 공명선거를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공명선거뿐만 아니라 종책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계종은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라는 멍에를 안고 떠나 수장 궐위 상황을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불신임 과정에서 종단안팎의 여론이 둘로 나뉘고, 서로의 목소리가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반복했다.

그렇기에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이 왜 차기 총무원장 적임자인지 구체적인 종책을 알리며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책토론회다.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현재의 종헌종법 기틀을 다진 조계종 현대사에서 총무원장선거 종책토론회는 2003년 제31대 선거단 한 번뿐이었다. 그나마도 선관위가 아닌 불교기자협회와 중앙신도회 등이 주관한 것이었다.

불과 1년 전, 제35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종책토론회 개최를 종법상 강제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후보들도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며 끝내 무산됐다.

현재 조계종은 위기상황이다. 과거와 똑같은 선거를 반복한다면 대중의 신뢰 회복은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각 후보들은 현 상황을 깊이 받아들여 어느 때보다 여법한 종책선거를 치러야만 한다.

범어사 · 사하촌 共生 '귀감'

부산 범어사가 새로운 불교전통문화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갑자기 사찰이 원래부터 불교전통문화 거점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범어사의 변화는 사하마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범어사는 9월 11일 성보박물관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토식을 했다. 기존 경내 성보박물관과 다르게 사하 상마마을에 들어서는 박물관으로, 박물관 위쪽에는 12월 선문화교육관도 함께 들어선다.

선문화교육관은 총 7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불사로 선체험교육관과 선문화관 등에 2개동이 세워진다. 선문화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와 문화체험 및 공연 등이 사찰 밖에서도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불사에 상마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여기에 부산문화재의 1/3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범어사 성보박물관도 함께 들어서는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사찰 내 개발에 주목해왔다. 사찰 중창불사 계획에도 대부분이 사찰 전각의 중창에만 신경을 써왔다. 범어사의 이번 박물관 불사와 선문화 교육관은 새로운 형식의 경외(境外) 불사다. 사찰보다 접근성이 좋은 마을을 함께 개발해 함께 공생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찰과 인근 마을은 역사적으로 이빨과 입술의 관계였다. 순망치한의 관계로 서로 함께 부대끼며 의지하며 살아왔다. 사찰 내에 모든 시설이 세워지만 사하마을은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불교계는 불사에 있어 인근 지역 공동체도 생각한 공생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